

### “진흥원 이사 배척 신의 저버린 행위”

진흥원 16일 이례적 성명 발표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김규철, 이하 진흥원)이 지난 6월 11일 열린 제91회 불교방송 이사회에서 진흥원이 추천한 구상진 前 이사의 임원 선임 안건을 부결시킨 것에 대해 “신의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진흥원이 불교방송 이사회에 대해 비판 성명을 발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진흥원은 6월 16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지난 6월 11일 방송사 설립 이후의 오랜 관례와 상호 존중의 신의마저 저버린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기존 이사장 수 범위 내 이사추천 시 추천기관의 사 존중”의 오랜 관례를 깨고, 이사회의장에서 일부 원로 스님 이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력제한 조항에 위배되지 않은 진흥원 추천 이사를 배척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부당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이사들이 사장 연임을 추진하기 위해 무리하게 정관 변경을 시도한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진흥원은 “불교방송 재단의 공식요청에 의해 사장후보추천을 위한 공모와 선출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장 후보 추천과 직결된 정관의 기초를 뒤흔드는 것은 그 자체가 공모와 선출과정을 크게 방해하는 처사”이라면서 “사회적 지탄과 응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 동국대 국내 14위 아시아 77위 ‘약진’

순위 집계 역대 최고 순위

동국대가 최근 영국 대학평가기관 QS(Quacquarelli Symonds)와 조선일보가 실시한 ‘2015 아시아 대학평가’에서 역대 최고 순위인 국내 14위, 아시아 77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아시아 대학 순위 96위로 Top100에 진입한 동국대는 올해 19계단을 끌어올려 아시아 17개국 507개 대학 중 77위를 기록했으며, 국내 대학 순위도 4계단 상승한 14위를 차지했다.

아시아 대학평가는 연구 영역 60%와 교육 여건 20%, 졸업생 평판도 10%, 국제화 영역 10% 등 4개 영역의 9개 지표로 기준으로 각 대학에 순위를 매긴다.

동국대는 “이번 평가에서 학계평가와 졸업생 평판도, 교원당 학생 수 등의 지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순위 상승을 견인했다”고 밝혔다.

동국대는 국내 대학 순위도 2012년 26위에서 매년 꾸준히 순위를 상승시키며 올해 14위를 기록했다. 노덕현 기자

# 등산객 실테·긋당 된 ‘6.25 폐사지’ 대책 없나

한국전쟁 발발 65주년 폐사지 현황 살펴보니

북한산 자락의 부황사는 속중 당시 북한산성 내 승병 양성과 약방 역할을 하기 위해 세워진 사찰로 한국전쟁 당시 소실된 곳이다. 주춧돌만 남은 이 곳은 현재 작은 콘테이너에 한 스님이 주석하며 중창불사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스님의 노력에 조금씩 사찰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

한국전쟁 발발 65주년을 맞아 이처럼 한국전쟁으로 소실된 폐사지에 대한 보존과 복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조계종 문화부가 2014년 불교문화재연구소의 <한국의 사지>에서 한국전쟁으로 폐사된 사지 목록을 살펴보니 전국에 40여 곳이 넘는 폐사지가 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경기도와 경상도 지역에 한정된 추린 리스트로 이들 지역에만 22곳의 폐사지가 있었다. 불교문화재연구소 측은 이외 지역까지 포함하면 40여 곳이 넘는다고 밝혔다.

고성 건봉사와 연천 삼원사 같이 유서 깊은 사찰들은 이미 중창불사가 진행됐지만 암자가 대부분인 이들 폐사지는 방치상태였다. 인적이 드문 산중에 위치하기도 하지

만 토지소유권이 민간에 있고 관리주체가 불명확한 점이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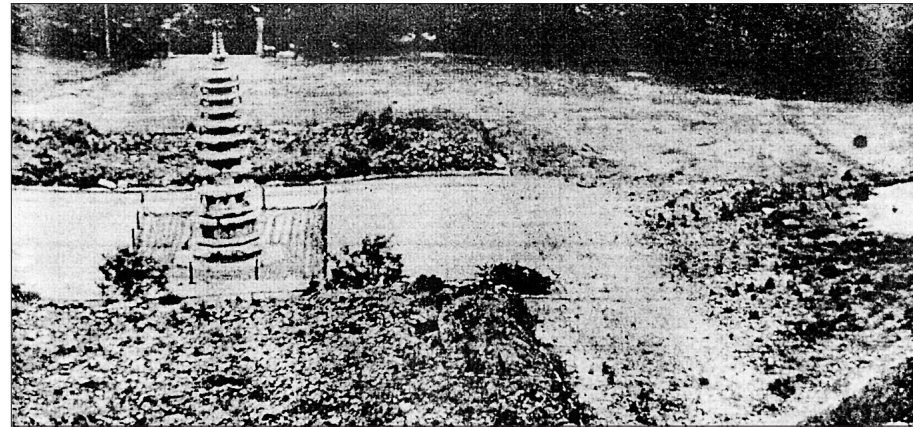
한옥빈 불교문화재연구소 팀장은 “유구 등이 대량 출토된 남원 피근사와 같은 경우도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폐사지 조사 내용을 보면 의왕 모락산에 위치한 경일암지의 경우에는 등산객 편의 시설로 인해 사지가 훼손되기도 했다. 조석

### 불교문화재연구소 40여 곳 추산 관리 주체 불분명해 사실상 방치 “근대까지 사찰역할... 관리 필요”

과 기단 등이 엄연히 남아 있고 근대까지 운영된 점이 확인되지만 등산로와 약수터가 있어 그나마 남아있는 유구(출토유물)의 훼손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포천 신흥사도 고려 고찰이고 한국전쟁 전까지 운영됐지만 컨테이너와 산신당이 있는 곳당으로 변한 상태다. 컨테이너 주변



한국전쟁 당시 전소된 월정사의 모습(사진 위). 현재는 복원돼 사찰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사적이 작은 암자들은 복원과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북한산 부황사지(사진 아래 왼쪽)는 훼손이 우려했으나 원상 스님이 수년째 중창불사를 진행하고 있다. 의왕 경일암지(사진 아래 오른쪽)는 등산객 실테로 변했다.

에는 팔각연화대좌와 탑신석 등이 방치돼 있으며 특히 연례좌상은 인근 펜션 뒷마당에서 조형물로 쓰이고 있다. 불교문화재연

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초석으로 보이는 석재들이 확인됨에 따라 매장된 유구들도 다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이다.

그동안 조계종은 이 같은 폐사지 파악에 힘을 쏟았다. 조계종 총무원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조사한 ‘한국전쟁과 불교문화재’를 보면 한국전쟁 당시 몽땅 불타거나 부분적으로 불탄 사찰이 당시 38선 이남지역 사찰의 20%에 달하는 180개나 된다. 서울과 경기 지역은 39곳이 소실됐으며 파주 봉암사와 용인 금수암 등 6개 사찰은 복구되지 못하고 폐사로 남아 있다. 강원도 지역은 피해가 더욱 심각해 피해사찰 25곳이 소실됐으며, 이 중 14곳이 폐사로 남아 있다. 호남지역은 14개 사찰이 복구되지 못하고 폐사로 남아 있으며, 영남지역도 8개 사찰이 폐사로 있다. 제주지역도 35개 중 10개 사찰은 복구되지 못하고 폐사된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전문가들은 폐사지에 대한 불자들의 관심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한다. 장용철 안양대 교수는 2012년 국회에서 열린 ‘전통문화 계승’ 세미나에서 “복원 가능한 폐사지의 경우 주변 사찰을 관리 사찰로 지정하는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폐사지 사찰음악회 등 홍보를 진행해 국민적 관심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 “부처님은 동성에 차별치 않으셨다”

조계종 노동위, 6월 17일  
성소수자 초청법회

종교계에선 이례적인 초청 행사  
“성소수자 권리보장 위해 노력”



조계종 노동위원 효록 스님이 6월 17일 성소수자 초청 법회에서 설법을 하고 있다.

6월 28일 성소수자 축제 퀴어문화 퍼레이드를 앞두고 불교계가 성소수자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조계종노동위원회(위원장 혜용, 이하 노동위)는 6월 17일 서울 견지동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부처님 오신 날 퀴어문화축제 기념 성소수자 초청 법회를 봉행했다.

불교계서 성소수자들을 위한 초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날 행사에는 이종걸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집행위원을 비롯한 성소수자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불교, 성소수자를 말한다’ 법문에 나선 노동위 효록 스님(사진)은 “성소수자에 관한 지식이 부족했을 때는 ‘모르는 세계’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컸다”며 “나름대로 책과 연구 자료를 통해 공부한 후로 두려움을 극복했다. 앞으로 성소수자를 알

리는 자리가 많이 마련되면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도 ‘모르는 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운을 폈다.

이어 스님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은 너, 나, 우리가 모두 불성을 갖춘 평등한 존재라는 의미”라며 “인간은 어떤 것에도 차별받을 수 없다. 윤회 사상에 따라 언제든 이성애자로, 동성애자로, 양성애자로 태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성소수자 입장을 대변했다.

또한 “부처님께서 재가자 성 생활 관련 ‘간음하지 말라’고 하셨을 뿐 동성애를

차별하는 말은 하지 않으셨다. 도덕적·윤리적으로 책임 있는 성생활을 요구하셨을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밖에도 효록 스님은 사회적 차별로 억압받는 성소수자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다. 효록 스님은 “세상 모두가 외면할 지라도 자기 자신은 스스로를 돌봐줘야 한다”며 “말 못할 고통으로 화가 끓임없이 올라오더라도 자기 돌봄의 끈을 놓아선 안 된다. 자비와 자애심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사회부장 정문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불교는 일찍이 계급과 신분을 넘어 존재의 평등과 고귀함을 가르치고 있다”며 “한국 내에는 아직 성소수자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해 있지만 앞으로 종단은 성소수자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참가한 성소수자 이 모씨(남·28)는 “무종교인이지만 불교의 자비 사상을 보여주는 이 자리에 매우 감동을 받았다”며 “정치권에서는 소수와 약자 집단을 위해 자신 입장을 피력하는 것을 꺼려하지만 종교계는 보다 자유롭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자주 있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아름 기자

## “선대 法恩 보답위해 정진하겠다”

조계종, 17일 종조 도의국사 추모다례제 봉행

조계종 종조 도의국사의 정진을 기리기 위한 법석이 마련됐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6월 17일 서울 종로 조계사 대웅전에서 ‘조계종조 도의국사 다례제’를 봉행했다.

이날 다례제에는 조계종 원로의장 밑은 스님, 원로의원 인환·세민·원경 스님, 동국대 이사장 일면 스님, 총장 보광 스님, 법주사 주지 현호 스님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다례제에서 종정 진제 스님은 원로의장 밑은 스님이 대독한 법어를 통해 “조사께서 가져오신 불조의 명주가 작금

의 조계에 서광을 발하니 사해오호의 만종생들로 하여금 동서도 없고 남북도 없으며 생사도 없는 진리의 낙을 영득(永得)케 하여지다”고 설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추모사에서 종조 도의국사의 발원과 인육행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자승 스님은 “도의국사의 간절한 발원과 인육행이 없었다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전통(傳燈)의 역사가 존재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러한 선대의 공덕위에서 후학들은 더불어 함께 사는 상생의 정토를 이루는 일에 힘써 매진할 것을 서원한다”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은 6월 17일 서울 종로 조계사 대웅전에서 ‘조계종조 도의국사 다례제’를 봉행했다. 사진은 원로의원 세민, 원경 스님이 헌화를 하고 있는 모습.

## 세계불교 초대법왕 일봉 서경보존자 탄신 101주년 다례제 및 원적 19주기 추모제

귀의삼보하옵고!  
근대 인류의 스승이신 일봉서경보존자님의 추모제를 봉행합니다.

종단 원로, 대덕 큰스님 그리고 일봉문도 스님들께서는 동참하시어 일봉존자님의 유훈을 깊이 새기는 법석이 되어 세계평화에 이바지하고 우리의 염원인 남북평화 통일이 하루속히 실현 될 수 있도록 추모제의 법석에 초대합니다.

◆ 장 소 : 울산광역시 청량면 개곡리 295-11번지 화엄정사

◆ 일 시 : 2015년 6월 24일(음 5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

◆ 문의전화 : 052)268-5565, 010-3875-5562

증명 : 법운 용암 명종

봉행위원장 : 화엄 집행위원장 : 삼주 추진위원장 : 광명심

추진위원 : 각 교구원장 및 임직원

대한불교 선교종 총무원